



대기업부문 서석구 (주)서영기술단 부사장

과 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로 대기업부문에 (주)서영기술단 서석구 부사장을, 중소기업부문에 (주)삼텍엔지니어링 이봉성 부장을 각각 선정하였다.

대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주)서영기술단 서석구 부사장은 25년여간 교량 설계분야의 일을 수행해 온 엔지니어로서, 사장교 및 현수교와 같은 특수 장대 교량의 국내 설계기술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서 부사장은 국내 최초로 비대칭 사장교 설계기술을 완도대교 시공에 적용하여 국내 장대 사장교 설계기술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국내 최장의 현수교인 광안대교 시공에 설계 책임자로서 교량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공헌하였다.

광안대교는 주탑의 거리가 500m에 달하는 국내 최장의 복층구조 현수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해대교 등 소규모 교량에 적용된 경우가 있지만, 그 규모나 형태에서 본격적인 현수교는 광안대교가 최초이며, 광안리 해변과 잘 어우러져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고 있다. 서 부사장은 이러한 광안대교의 최초 단계 계획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설계 책임자 및 시공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산간 계곡,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등에 널리 적용되어 국내 토목설계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과 국제적인 건설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문 이봉성 (주)삼텍엔지니어링 부장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주)삼텍엔지니어링 이봉성 부장은 17년간 산업설비 및 자동차 공장 프레스 생산라인 설비를 개발해 온 엔지니어로서, 생산성 향상의 핵심기술인 자동화 기술분야에 많은 개발 및 실용화 실적을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 프레스 공정에 적용되는 공용 세정장치(Off Line Washing Unit)와 소재를 자동으로 투입하거나 취출하는 'Transfer Unit 및 Sheet Loader/UnLoader'와 같은 신개념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장치는 여러 형태의 소재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재를 자동 정렬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부장은 또 적재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Soft Piling)를 적용하여 적재장치의 신기술을 확보하였고, 프레스 라인마다 각각의 아이템 소재 세척장치를 설치하던 공정을 하나의 프레스 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장치의 국산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1인을 선정, 과학기술부장관상과 트로피,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 **SD**

정리_류통은 기자 teryu@kofst.or.kr